

4 캠퍼스 내 전동킵보드 이용문제

캠퍼스에 녹아들지 못하는 전동킵보드

허지영 기자 jy000224@khu.ac.kr

전동 킵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는 강화되지만 그 실효성에 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현행법 만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 헬멧 의무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면허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킵보드 대어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등록만 하면 대어가 가능했다. 이용자와 대여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면허 무소지자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헬멧 착용도의 의무화되지만, 킵보드 대어 업체들은 대어 대상에 헬멧 포함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직접 헬멧을 준비해야 한다. 동대문구 회기과출소 추현호 경장은 무면허 운전 규정에 관한 질문에 “무면허 운전자들이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미리 막기는 어렵다”며 “킵보드는 번호판이 없어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인적사항을 발부해서 진행한다”고 답했다.

캠퍼스 내 전동킵보드 이용자들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서울캠퍼스 정문 앞 인도에 전동킵보드가 주차된 모습이다.

(사진=허지영 기자)

도 문제가 있었다. 전동킵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보도 통행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나, 보도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구역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서울캠퍼스 내에는 노천극장 주변 도로나 본관의 분수대 가장자리 쪽 도로와 같이 인도, 차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구역이 곳곳에 있는 상태다. 교내 차량 유도원 김봉룡 씨는 “교내에서 역주행하는 킵보드 운전자들이 많다”며 “차량 운전자들도 역주행하는 킵보드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킵보드를 운전할 때에는 가장자리로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특히 교시 탑 주변에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며 “요즘 코로나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가 많

아서 점심시간에 특히 사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와중에 학생들은 전동킵보드 소독과 방역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기준(치의학 2019) 씨는 “평소에 킵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코로나19가 아직 확산 중인만큼 손잡이 부분을 잡을 때 항상 걱정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다 보니 사용시 주의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헬멧 의무화가 된다고 들었는데 헬멧도 대여될 경우 방역이나 위생이 잘 지켜질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회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킵보드 대어 업체 ‘빔’ 커뮤니케이션 팀장 권오상 씨는 “빔모빌리티의 3/4세대 킵보드인 빔 세턴과 빔 새

턴 플러스는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방지에 탁월한 항균 핸들 코팅 처리가 되어있다”며 “지자체 요청에 따라 킵보드 배치 시 추가적인 소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헬멧에 관한 질문에는 “과거 일부 지역에 사용자들을 위한 헬멧을 수백 개 배치한 바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위생 우려, 분실, 파손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킵보드 대어업체에 문의한 결과, 헬멧도 대어 대상에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이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배터리 교체를 위한 수거 기간에 주기적으로 소독 및 방역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교내뿐 아니라 캠퍼스 앞 상권이

위치한 골목에는 전동킵보드가 무질서하게 주차되어있어 학생과 주민들의 통행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전동킵보드 어플 이용안내에는 ‘통행을 막는 곳’,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물’, ‘소방 시설물 주변’에는 주차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서울캠 앞 상권에 있는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학생들이 가게 앞에 전동킵보드를 버리듯이 주차해놓고 간다”며 “식자재 운송 차량이 통행하고 주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동킵보드를 주차할 때 더 신경 써서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차량 유도원 김 씨는 “학생들이 킵보드를 몰고 와서 수업 들어간다고 급하게 길가에 세워놓고 가버린다”며 “이런 경우 차량 유도에 어려움이 있고 차량 통행에도 방해된다”고 말했다.

캠퍼스 내에서 사고도 있었다. 김 씨는 “작년에 킵보드를 탄 학생이 교시탑 앞에서 오토바이,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학생들이 킵보드 운전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멈추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동킵보드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추경장은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킵보드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음주 운전은 특히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에 2명이 동시에 탑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번 규제 강화에 대해 많은 학생이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개인안심번호는 **NAVER, kakao, PASS** 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발급·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학년도 후기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
- 유엔평화학 관련 유수의 석학으로 이루어진 교수진 (Thomas Weiss, Ram Cnaan, 오준 등)
- 다양한 장학제도(전액, 성적, 기숙장학 제공)
- 서울캠퍼스와 광릉캠퍼스에서 수업 진행

1. 모집과정	석사과정
2. 모집전공	국제평화, 유엔평화학, 평화안보정책
3. 전형방법	면접
4. 원서접수기간	5월 24일 ~ 7월 1일(기간 내 수시모집)
5. 온라인 원서접수	http://gip.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6. 문의처	• 이메일 : gip@khu.ac.kr • 문의전화 : 031-570-7012~9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